# 끝없는 불황…전남 국가산단 가동률 뚝

## 대불, 작년비 -3.9%…휴폐업 업체 속출
## 여수, -9%…中 수요 감소 영업익 반토막

전남을 대표하는 국가산업단지의 가동률이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 대불산단은 조선불황 여파의 직격탄을 맞아 신음중인데다 여수산단은 입주기업들의 대정비 기간이 시작되면서 활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가동률 하락에 따라 생산액과 영업이익도 감소했다.

25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따르면 영암 대불산단은 입주기업의 73%를 차지하는 조선업체들이 불황에 시달리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3월 83.2%에 이르던 가동률은 올 3월 79.3%로, 3.9%나 하락했다. 올해 3월까지 대불산단의 휴·폐업 업체는 11개로, 지난해 휴·폐업 업체수(9개)를 뛰어넘었다. 1분기 생산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나 감소했다.

수주가 줄고 인력감축도 이어지면서 대불산단 고용 인원은 올 1분기 7842명으로, 전년 동기 8091명과 비교해 3%(249명)나 줄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 등 통계에 기록되지 않은 인력을 포함하면 줄어든 인원은 20% 가까이 될 것이라는 추정이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현대삼호중공업과 대한조선 등 대형 조선업체의 수주상황이 지난해보다 다소 나아지긴 했지만 일감 부족으로 인한 중소조선업체의 경영 악화는 상당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내최대 석유화학산업 단지인 여수산단도 사정이 좋지 않다.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여수·광양지사에 따르면 현재 여수산단 내 가동중인 226개 업체 가동률은 지난해 기준 93%였으나 올 3월 84%까지 하락했다. 올해 초 산단 입주기업들이 대정비에 들어간 것이 주된 이유다. 원유가격 등 국제시장 변동 영향을 크게 받는 여수산단 특성상 가동률 하락보다 더 큰 문제는 영업이익률의 감소다.

실제 여수산단의 주요기업인 롯데케미컬, LG화학, 여천 NCC 등 대기업들은 중국발 수요감소로 인해 영업이익이 최근 큰 폭으로 줄었다. 롯데케미컬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무려 74.7% 감소했고, LG화학 32.2%, 여천NCC가 38.3% 줄어드는 등 산단 대기업들은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여수산단 관계자는 "장치산업 특성상 경기 호황 시 국제시장 변동에도 가격전이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경기하락시에는 수요가 줄고 가격전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자를 보고서라도 판매할 수 밖에 없는 게 업계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

**기아차 '트래블 프런티어' 발대식** 기아자동차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한국관광공사 야외공연장에서 '트래블 프런티어'(Travel Frontier) 발대식을 가졌다. '트래블 프런티어' 프로그램은 기아차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장애인이 여행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들을 찾아내 이를 개선하는 활동이다. 〈기아자동차 제공〉

## 벽걸이 '미니' 신모델 3종 출시
## 동부대우 소형세탁기 시장 주도

동부대우전자가 새 벽걸이세탁기를 출시하며 소형세탁기 시장 선두주자로 나섰다.

동부대우전자는 25일 2013년형 벽걸이세탁기 '미니'의 신모델 3종 등 총 6개의 모델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신제품은 기존 고급형 모델에만 있던 '아기옷 삶음 코스'를 기본기능으로 채택하고, 저소음 무진동 인버터 모터를 사용해 만족도를 높였다. 또 젊은 세대 취향에 맞춰 로즈핑크, 민트블루, 빈티지브라운 색상 등 디자인을 한층 감각적으로 변화시켰다. 벽걸이세탁기 '미니'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소량의 세탁물을 자주 해야 하는 가정을 위해 출시한 제품으로 출시 이후 1년 만에 누적판매 3만3000대를 기록하며 인기몰이 중이다. 신모델 가격은 44만9000~47만9000원이다./임동률기자 exian@

## 국내기업 부도위험 연중최고 美양적완화 축소 후폭풍

미국 양적완화 후폭풍이 몰아치면서 국내 주요기업의 부도위험 지표가 연중 최고로 치솟았다.

25일 금융투자업계와 파생상품 전문기업인 슈퍼디리버티브즈(SuperDerivatives)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삼성전자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73.57bp(1bp =0.01%포인트)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1월 1일 37.50bp보다 배 가량 높은 수치다. CDS 프리미엄은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하는 파생상품인 CDS에 붙는 가산 금리다. CDS 프리미엄이 높아진 것은 그만큼 해당 기업이나 국가의 부도위험이 커졌음을 뜻한다.

삼성전자 CDS 프리미엄은 1월 4일 올해 최저(35.00bp)로 내려간 이후 상승세를 보였다.CDS 프리미엄은 4월 9일(60.82bp)까지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지난 7일 스마트폰 판매 우려를 지적한 외국계 보고서가 나온 이후 급등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간표가 구체적으로 나온 이후 신흥국 시장에서 자본이탈이 심해진 것도 CDS 프리미엄의 급등세에 불을 댕겼다. 현대자동차의 CDS 프리미엄 역시 지난 21일 106.04bp로 연중 최고치(11일 103.61bp)를 다시 갈아치웠다. 연중 최저인 5월 10일(69.53bp)보다 36bp가량, 연초(79.68bp)보다 26bp 높았다. SK텔레콤(104.82bp), 기아차(109.82bp), KT(104.21bp), GS칼텍스(108.78bp) 등도 21일 기준으로 CDS 프리미엄이 올해 최고였다. 은행권과 공기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민은행(106.91bp), 우리은행(116.65bp), 신한은행(110.18bp), 하나은행(113.39bp), 기업은행(102.99bp) 모두 21일 CDS 프리미엄이 연중 최고를 나타냈다. 한국가스공사(107.09bp)와 한국석유공사(99.57bp), 한국철도공사(103.78bp)의 CDS 프리미엄도 21일 최고치를 보였다.

이들 기업의 CDS 프리미엄은 대체로 미국의 출구전략 우려가 본격적으로 나온 5월 말 이후 급등세를 보였다. 한국의 CDS 프리미엄도 이와 궤를 같이했다. 한국 국채의 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28일(69.19bp)을 기점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한국 CDS 프리미엄은 20일 107.21bp로 올해 최고를 기록해 작년 9월 3일 이후 처음 100bp를 넘었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기업 경기 전망 3분기도 암울
### 美·중국발 악재…8분기 연속 기준치 밑돌아

광주와 전남·북지역 기업들은 올 3분기에도 기업체감경기가 낮을 것으로 예측했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국 25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올 3분기 전망치가 기준치(100)를 밑도는 '97'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보다 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지난 2011년 4분기(94) 이후 8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밑돌고 있다. 기업경기전망지수는 100 미만이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고, 100을 넘어서면 그 반대다.

호남권 기업의 경기전망은 '92'로 조사됐다. 2·4분기 80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체감경기는 기준치에 못 미쳤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분기 BSI가 전분기보다 30포인트 상승했지만 최근 엔저지속과 미국 양적완화 축소, 중국경제 둔화조짐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3분기 지수가 다시 하락했다"며 "이에 따라 8분기 연속 0%대의 성장률을 기록한 국내경제가 하반기 들어 회복할 것이라는 정부와 주요기관의 전망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중국發 금융불안 상당기간 지속될 듯
### 美 출구전략과 맞물려 최대 두 달 갈 수도

중국발 금융 불안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통화 기조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를 위한 출구전략과도 맞물려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는 25일 "현지 은행들이 현재와 같은 살얼음판 국면을 벗어나는 데 최대 두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인민은행의 최근 통화 정책 기조는 미국의 양적 완화를 축소하려는 출구전략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외환위기 전(2003~2007년) 중국은 연평균 51억달러의 포트폴리오 투자액 순유출을 보이다가 위기 후(2009~2012년)에는 296억 달러 순유입으로 상황이 급변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새 지도부가 경제정책의 접근방식을 바꾸려 한다는 해석도 있다.

중국의 현 신용경색 국면이 한국의 실물 부문까지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세다. 현 국면이 위기는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금융시장은 불안감 때문에 변동한 것이지만 중국의 실물지표는 미약하나마 올라가는 추세"라면서 "중국 실물도 악화할 것이라는 얘기는 너무 확대해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남농협 다문화가족 합창대회** 전남농협(본부장 박종수)은 25일 전남농협 대강당에서 농촌 다문화가정의 화합을 통해 건강하고 명랑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러브인 전남농협! 다문화 가족 합창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진농협 등 10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전남 농협제공〉

| 코스피지수 | 코스닥지수 | 금리 (국고채 3년) | 원·달러 환율 |
|---|---|---|---|
| 1780.63 (-18.38) | 480.96 (-27.69) | 3.02% (-0.10) | 1160.20원 (-1.20) |